



박소현의 섹.시.토크

그녀는 여우와 여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꿈과 야심에 성적이 순진하고 단순한데다 조금 어리숙한 부분도 있었다. 남편은 그녀의 순진한 부분을 가장 마음에 들어 했지만 아주 가끔은 왜 그리 요령이 없느냐고 답답해하기도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샤워에 은근한 향수까지 뿌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아내가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니 남편의 몸이 동요하지 않을 리 없었다. 잠자리가 꽤 무르익어 남편이 흥분에 다다른 순간, 그녀가 말했다.



“어보, 나 가방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남편은 생각하고 뭐고 할 것 없다는 듯 바로 외쳤다. “응, 사줄게.”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 걸 왜 여태 몰랐을까 싶었다.

케이를 외쳐놓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고 내뻐는 남자였다면 아마 씨도 먹지 않았을 것이다. 원하는 가방을 얻고 일주일쯤 지났을 것이다. 이번에도 잠자리에서 남편이 절정에 다다랐을 무렵 그녀는 컷소리를 잔뜩 내며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이 흥분에 다다른 순간 “가방 사줘” “냉장고 사줘” 어느날 남편이 유난히 노력하더니 “주말에 친구들이랑 낚시 갈게”

남편은 아주 잠깐 뜬금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지만 흥분한 뉘는 이내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래, 사, 내가 사줄게.” 이번에도 무사통과였다. 그날부터 그녀의 ‘잠자리 중 요구사항’은 계속 되었다. 그렇다고 아주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잠자리는 최고의 협상 테이블

은 자신이 내뻐는 말을 지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도 했다. 이상한 김새가 느껴진 것은 이주 전의 일이다. 잠자리에서 유난히 남편의 노력이 었 보였다. 평소보다 애무도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여러 번 반복했다. 당연히 다른 날보다 흥분도가 높아 질 수밖에 없었다.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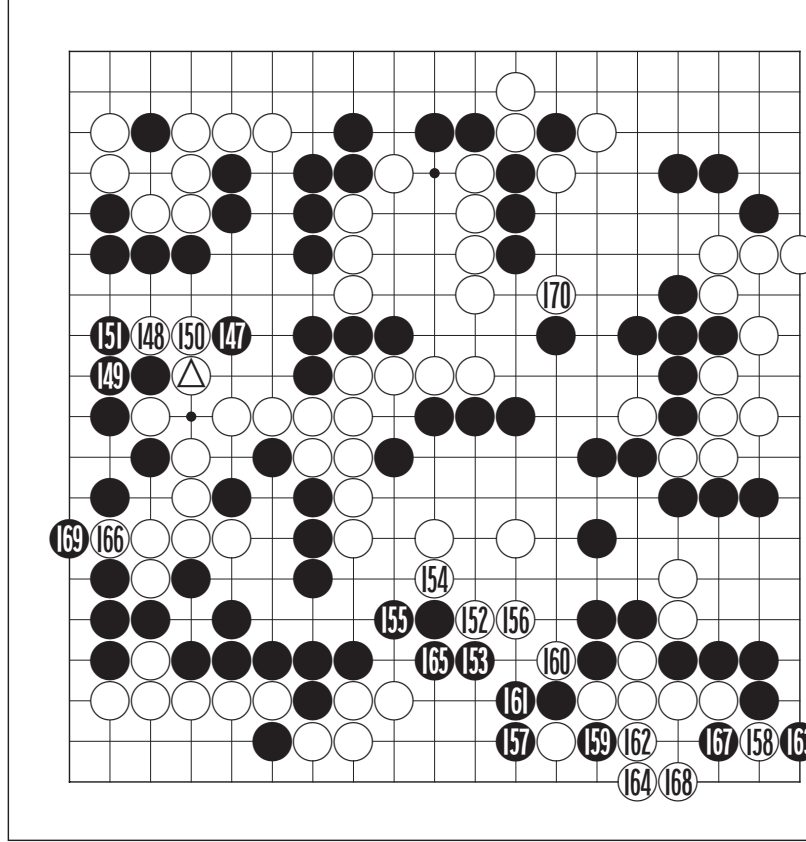
‘감사패 전략’ 연말 방송대상에 비난 쏟아져

연말·연초의 분주함 속에서 이번 주는 연예인이 인터넷세상을 점령했다. 방송 3사의 ‘분야별 방송대상 수상자가 누구냐?’라는 네티즌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순위란 상을 받은 연예인 이름으로 도배했다.

연예인들의 공개적인 ‘사랑고백’도 화제가 됐다. 연기대상에서 ‘이산’ 역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배우 이서진은 “TV를 보고 누구보다 기뻐해 줄 연인 김정은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고, 얼마 전 결혼을 발표한 배우 장혁도 “앞으로 생길 나의 가족에게 고맙다.”라며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했다.

‘무한도전’으로 방송연예대상에서 공동 대상을 받은 개그맨 유재석도 연인으로 알려진 아나운서 나경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아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시험 후 쓰러져 6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난 권투선수 최효삼선수도 네티즌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면서 최요삼 선수의 패류를 빌던 네티즌은 끝내 뇌사판정 소식이 전해지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네티즌은 또 마지막까지 장기간을 하고 떠난 최요삼 선수를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챔피언’이라고 부르며, 추모글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공격의 효과 10보(147~170) 백이 △로 찢혀서 패가 나가는 했으나 전담팀에게서 흑 157로 찢히는 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때 백은 ‘참고도’의 1로 끊고 3로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흑 4로 있는 수가 공배를 메우게 되어 흑 8 다음 10으로 깨워넣으면 백 대마가 뚱뚱 잡히게 된다.

바둑소식 ‘철녀’ 여류명인전 독주하나 여류명인전을 휩쓸고 있는 ‘철녀’ 루이아이웨이 9단이 제9회 대회 결승에서도 조혜연 7단을 누르고 강세를 이어나갔다. 루이아이웨이는 3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스카이라이프 대극실서 열린 이 대회 결승 1국에서 조혜연을 204수만에 불계승으로 누르고 1승을 따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굿모닝 잉글리쉬 <1069> I sometimes go to my office by taxi 때로는 택시를 타고 출근하기도 합니다 A : It's quite convenient for me to go to work by subway train. B : So you don't have to wake up early and fight the traffic jam. A : Yep! How about you? B : I sometimes go to my office by taxi, and sometimes by foot. The office is near my apartment.

오하오우 니혼고 <1069> お寿司(すし)はお酢(す)のごはんで作ったんでしょう? 초밥은 식초 밥으로 만든 것이죠? A : お寿司(すし)はお酢(す)のごはんで作ったんでしょう? 作り方は簡単ですか. B : そうですね. 僕もちらし寿司(すし)くらいなら作れるんですが. A : えっ、ちらし寿司(すし)? 寿司(すし)と言ってもいろいろあるんですね. B : ええ、手巻(てまき)寿司(すし)に、押(お)し寿司(すし)にとにかくいろいろありますよ.

니하오 쑹구위 <46> 你打算在哪儿过新年? 년 어디서 새해를 보낼 생각이니? A: 新年就要到了. xīnnián jiù yào dào le. B: 你打算在哪儿过新年? nǐ dǎsuàn zài nǎr guò xīnnián? A: 我打算在韩国过新年. wǒ dǎsuàn zài hánguó guò xīnnián. B: 是吗? shì ma? A: 对, 在韩国. duì, zài hánguó. B: 在哪儿? nǐ zài nǎr? A: 在韩国. zài hánguó. B: 在韩国哪儿? nǐ zài hánguó nǎr? A: 在韩国首尔. zài hánguó sēoul. B: 首尔在哪儿? sēoul zài nǎr? A: 首尔是韩国的首都. sēoul shì hánguó de shǒudōu. B: 首尔是韩国的首都. sēoul shì hánguó de shǒudōu.

한자 이야기 <686> 담대심소(膽大心小) 담력담, 큰 대, 마음 심, 작을 소 담대심소(膽大心小)는 담력은 크게 갖되 마음 씩씩이는 세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담력(膽力) 즉 배짱이 크면 웬만하 일애 마음이 동요(動搖)되지 않아 태연자약(泰然自若) 할 수 있다. 그런데 마음 씩씩이 즉 주의력(注意力)이 세심해야만 실수 없이 세밀하게 일을 처리한다. 이 말은 문장을 짓는 마음가짐을 표현한 말이다. 이 말은 당서(唐書) 은일전(隱逸傳)에서 손사막(孫思邈)이 말한, “담력은 크게 가지려고 하나 행동은 뚜렷하고 바르게 하고자 한다.”에서 유래한다. 담대심소는 문장을 지을 때의 마음가짐이지만, 일상생활 속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 삼아도 좋은 내용이다. 실천이 따르지 않는 말을 경솔하게 하면 일은 실패로 끝나게 되므로 세심한 주의력이 필요하다.